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공공디자인이즘

‘이유 있는 디자인’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친환경 소재 활용해 업사이클링 등 대안 제시
시민 참여 이끌며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앞장

디자인의 공공성을 확장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가진 사회적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내덕동에 위치한 공공디자인이즘이 그 주인공.

2013년 ‘공공디자인이즘’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디자인의 공공성 확장,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친환경적 대안 기획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디자인 과정과 결과물에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공공디자인이즘 허진욱 대표를 만나봤다.

편집자주

Q. 공공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디자인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공의 가치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각종 사회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더해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접목시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창업초기 쓰레기 불법 투기가 빈번한 마을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얼마 되지 않던

기업 이윤을 활용해 매칭그랜트 크라우드펀딩 형태로 지역사회 지원을 이끌어냈다. 마을 주민을 비롯해 자원봉사까지 100명이 넘는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자원이 꾸준히 모아져 3개월여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성과를 내며 성장하게 됐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디자인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친환경현수막 사용으로 환경폐기물은 줄이고, 수거된 현수막을 활용해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일감을 나누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과 연계하여제로웨이스트 플라마켓 운영,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기획·제품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과 기업, 기관이 참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계망을 설계하고 제안하며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소비되고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Q.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공공디자인이즘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이유 있는 디자인 캠페인’을 꼽을 수 있다.

2017년부터 디자인 환경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활용, 친환경적 방법 연구, 업사이클링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참여를 이끌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공공디자인 이즘’ 전경.

내고 있다.

일례로 폐기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현수막을 친환경 섬유로 대체하고 수거해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 가방으로 업사이클링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한번 사용한 현수막을 수거·세척·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과 일감을 나누며 공동 생산하고 제품 판매 수익은 기부,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특징이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매년 약 2~3회 비영리 민간단체와 시민, 행정,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협업을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이라기보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소셜 비즈니스를 통해 공공디자인이즘의 필요성을 지역에 증명할 수 있었고, 디자인적으로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많은 기관, 단체들과 자연스럽게 협업하며 자리매김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공공디자인이즘이 꿈꾸던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과 자원으로 지

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우리의 디자인 활동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 해결에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되어 다양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심이 되길 바라며, ‘모두를 위한 선택’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공헌의 성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제도적인 틀 안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의 필요에 의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그 과정에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친환경적인 대안을 설계하며 변화를 위한 경험과 사례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기업이 되고자 한다.

2022년부터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의 가치와 펀딩, 유통, 연계 등 청주시의 소재은행 역할로서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아하’ 인사이트맵 오픈을 계획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시민 누구나 버려지는 생활의 도구들을 쓸모 있게 만들어가는 리빙랩 공간으로 더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협업을 통해 크고 작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충북도, ‘장애인교육비 지원사업’ 펼쳐

평생교육, 학력취득, 취·창업교육 등 자립 여건 개선 효과

충북도는 정기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비정규 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장애인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총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청주시, 제천시, 옥천군의 3개 학교에 장애인의 문해교육, 검정고시 취득, 취업연계교육, 평생교육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3개 학교는 2020년 기준 21개 프로그램 운영, 1만 6174명의 교육수혜자 배출, 1123회의

교육 운영 등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자립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해당 학교는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및 전문 강사 등 인력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교육 욕구 충족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민은 해당 학교 및 시군 장애인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교통약자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와 긴급상향 시 리프트 차량을 지원하는 긴급 이동지원 사업을 추가로 진행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시상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는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7일, 8일 이틀에 걸쳐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권역별로 나누어(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개최되었으며 중부권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북부권은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남부권은 옥천통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유공자 표창수여만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복지인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 종사자 및 사회복지 공무원 등 37명이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장,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상을 수상했다.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지사 표창(14명)
-강동원(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 강선영(진천군장애인복지관), 강인선(제일지역아동센터), 송인옥(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신지연(옥천지역자활센터), 안미경(청천재활원), 양연희(증평종합사회복지관), 여상희(영

동군사회복지협의회), 연영희(홍복양로원), 오미선(청주상당노인복지관), 임대현(하소아동복지관), 장석민(충주시노인복지관), 조라영(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한아름(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의회회장 표창(12명)
권정규(단양장애인복지관), 김가애(청주우암시니어클럽), 김술지(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김영주(충주시장애인사랑센터), 김인자(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 마필순(서청주노인요양원), 박경진(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성호준(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신동식(음성군장애인복지관), 오재석(옥천시니어클럽), 이도민(괴산군장애인복지관), 이셋별(진천군장애인복지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표창(11명)
권순철(한가족그룹), 김병하(서청주노인요양원), 김인숙(꽃동네심신장애인요양시설), 김경숙(진천군장애인복지관), 김지선(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화순(영동군사회복지서비스센터), 이상경(음성꽃동네노숙인재활원), 이서화(청주상당재가노인지원센터), 조은진(목령종합사회복지관), 지은수(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황명화(영



업사이클링해 만든 가방.



전통시장 플라마켓 운영.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제천시립〉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

충북 1호... 작년 공립요양병원 운영 평가 '최우수' 받기도

제천시립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5번째, 충청북도에선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치매안심병원은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따라 시설, 장비,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 65개 공립요양병원 중 지정 조건 충족 여부 확인 등 심의를 거쳐 지정 된다.

이번에 지정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2017년 국비를 지원받아 60병상의 치매안심병동을 설치했으며 비약물 치료 전용 프로그램실과 낮 활동을 위한 공용거실, 증상 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목적 프로그램실, 상담실, 심리안정실 등 치매환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케어를 위한 치매친화적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

고 있다.

아울러 신경외과 전문의, 치매전문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환자별 맞춤형 전문치료를 병행하고 있어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BPSD) 치료가 가능해 집과 동시에 전문치료를 통한 조속한 증상완화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줄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동 심 리 증 상 (B P S D ,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은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말한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2020년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평가에서도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치매환자 입원 및 치매상담 등 자세한 사항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뇌건강증진센터(☎043-646-0808)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 '온 힘'

청주월드휴먼브리지와 협약 자원봉사단과 돌봄사업 운영

청주시와 청주월드휴먼브리지가 8일 지역사회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범덕 시장과 안광복 청주월드휴먼브리지 대표, 정병원 담당목사 등 7명이 참석해 협약과 함께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1년간 지역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소외이웃 등 지원 대상자



한범덕 청주시장(오른쪽)과 안광복 청주월드휴먼브리지 대표가 8일 지역사회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하고 있다.

를 추천하고, 청주월드휴먼브리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자원봉사단 구성·봉사활동 참여, 명절맞이 생필품 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청주월드휴먼브리지는 지난 1년간 1억5천900만 원 상당의 저소득 가정 명절 지원, 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 생필품, 식료품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안광복 대표는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월드휴먼브리지는 지난 2009년 소외빈민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로 출범하여, 2019년 7월 청주협력기부를 창립했다. 국내·외 소외계층들에게 아동청소년교육사업, 청소년 희망사업, 의료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 기탁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10곳 전달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1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 불우이웃을 돕기 위

한 성금 1천만 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추석 명

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시 사회

복지시설 10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충진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맞이한 추석명절인만큼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비록 작은 성금이지만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힘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류한우 단양군수가 단양중학교를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단양군, 청소년 1150명에 마스크 전달

단양군은 지난달 아동 마스크 배부에 이어 안전취약계층 보

호를 위해 지역 내 청소년 1150명에게 KF94마스크를 각 50

매씩 지급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마스크는 국립공원공단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마스크 분류 및 배부 작업에 단양군희망복지지원단, 대한적십자봉사회 단양군지구협의회, 군청 봉사동아리 '단봉화' 등 다수

봉사자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군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마스크를 배부했으며, 여성청소년 590명에게는 (사)나눔여하나되기로부터 전달받은 여성성결제도 함께 지급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청소년의 참여권 증진과 청소년 복지 실현을 위한 '1기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출범했다.

음성군, 제2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

지역 거주 청소년 20명 구성 1년간 정책 의견 제시 등 참여

음성군은 청소년의 참여권 증진과 청소년 복지 실현을 위한 '1기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첫발을 내디뎠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

권 확대)에 따라 청소년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 참여해 사회성,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거주하는 9~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해 초등학교생 4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1년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정기·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평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참여, 토론회, 국내·외 단체교류에 대표자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단체장과 의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진천군 "새터민 울타리 되어드립니다"

4개 민간단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협약



진천군은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 내 4개 민간단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천군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군은 2일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길영), 대한적십자봉사회진천지구협의회(회장 이

민향),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태우), (주)면사랑(대표 정세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장,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심리적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회단체와 기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진됐다.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한적십자봉사회진천지구협의회는 긴급구호와 물품 지원,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기관 연계 지원, (주)면사랑은 취업 지원 등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한다.

한편 진천군에는 현재 15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군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에서도 가전제품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충주시, 구직희망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고용·소득활용 지원 MOU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10일 장애인 고용 및 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구직희망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도모와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은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장,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구직희망 장애인 연계(직업상담 및 평가 지원), 장애인 구인 업체 연계, 고용 촉진 및 사회참여 연계 협조 등이다.

양 기관은 실질적인 협력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협력해 구직희망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베이컨, 소시지, 베이컨 등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병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증평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증평군이 지난 7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은 2019년 5월 아동친화도시 비전 선포식.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도시' 기반 마련에 의미 5개 조성·14개 세부목표, 32개 전략과제 추진

증평군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도내에서 5번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며, 인증기간은 2021년 9월 7일부터 2025년 9월 6일까지 4년간이다. 이로써 증평군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서와 현판을 받고, 향후 4년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그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일로서 해외사례 조사 참여와 협력사업 등 참여할 기회도 얻는다. 군은 총 사업비 95억 7600만원을 들여 '존중받는 아동! 사랑받는 아동! 살기 좋은 증평'을 비전으로 5개의 조성목표, 14개 세부목표, 32개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군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등을 추진해 아동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 자연치유 별천지 숲 인성학교 건립, 장난감도서관 설치 등 놀이와 여가생활, 교육환경 진 분야에 걸쳐 폭 넓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2019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개정, 아동의 참여체계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추진, 아동 예산 분석,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등 10가지 구성요소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진천군, 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진천군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이 표창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명 수상·복지협 회장에 공로패

진천군은 22회 사회복지의 날(9월 7일)과 사회복지 주간(7~14일)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영) 주관으로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패 수여

식을 함께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도 기념식은 취소하고 표창 수여식만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이선옥(덕산읍), 충북도지사 표창은 장미선(주린복지과), 진천군수 표창은 김완구(대한노인회진천군지회)·김미래(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김정선(주린복지과), 진천군회의회장은 김현

숙(드보라의집)·백현준(생겨진 천노인복지센터)·권옥(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연정숙(진천군 노인복지관)·방미숙(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이다. 또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이규창 전 회장에게 진천군수 공로패와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가 함께 수여됐다.

증평군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협약



증평군은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노인복지관·청소년센터 등 4개 공공·민간기관 참여

증평군은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성열 군수를 비롯해, 증평군 노인복지관 김용에 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병노 센터장, 소월경암문화

관 유금남 관장, 블랙스톤벨포레 김정렬 기획부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4개 기관은 문화가 있는 날 자체기획 사업 추진과 더불어 공동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문화가 있는 날 저변 확대 및 주민 관심 제고 등에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상대적 문화 소외계층인 노년층과 학교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문화와 복지가 결합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옥천 정근식 치과의원, 행복나눔마켓 후원

후원금 1000만원 기탁 1990년 개원·꾸준히 기부

옥천 정근식 치과의원 원장은 2일 옥천군수실을 방문해 옥천 행복나눔마켓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행복나눔마켓 이용자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옥천읍에서 태어나 옥천중학교를 졸업한 후 대전 보문고, 서울 단국대 치대를 거쳐 고향으로 내려와 지역에 뿌리내린 옥천 토박이다.

지난 1990년에 개원한 이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고향



지난 2일 충북 옥천 정근식 치과의원 원장이 옥천군청을 방문해 옥천 행복나눔마켓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주민들 치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옥천군장학회 등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한편, 행복나눔마켓은 지역 내

14개 업체와 정기기부 협약하고 9개 읍면 500여명 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 식재료, 일반 생활용품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옥천군, 청년 창업 지원에 두 팔 걷어

10월6일까지 점포임차료 사업 접수 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지원

옥천군은 관내에 정착해서 창업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건전한 소상공인으로의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한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군은 2020년에는 청년 창업 소상공인 7개소를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5개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북돋기 위하여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선정된 청년창업 소상공인은 월세기준 매월 50만원 한

도로 최대 2년간 점포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특히, 금년부터는 최근에 개업한 소상공인에게 높은 점수를 배정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과 거

주사실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휴·폐업 업체 및 한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정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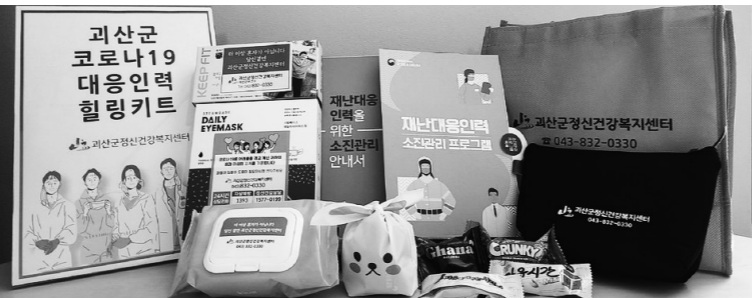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 소상공인은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옥천군청 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10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부터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힐링키트 배부

코로나19 대응인력 응원... 스트레칭기·간식 등 구성 150개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괴산군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키트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힐링키트는 아이마스크, 스트레칭기, 파우치, 물티슈, '재난대

응 인력을 위한 소진관리 안내서' 1부, 간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괴산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에 총 150개를 배포했다.(사진) 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괴산군



보건소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를 의미 담아 힐링키트를 배포했다.

영동교육청, 아동권익보호 공동사업 추진

충북남부아동보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보호 등 업무협약



영동교육청과 충북남부아동보호기관은 7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동교육청(교육장 박영자)은 7일 영동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남부아동보호기관과 아

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 위기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양 기관 간 대상 의뢰 및 정보교환, 위기아동 및 학대의심아동에 대한 지원 협력,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자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피해 아동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및 치료 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 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탁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대리 (T.043-234-0840~2)

‘사회서비스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종사자 처우개선에 선도적 역할

사회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사회복지 시설 중 1.2%만 국공립 직영 비율”이라며 “지나친 민간 의존도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직영 비율은 2018년 말 기준 0.4%였다가 2019년 말 기준 1.2%로 증가하는 듯했으나, 2020년 말 기준 1.0%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돼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울산과 제주에 추가 설립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사회서비스원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지방출자출연법’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사회서비스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평가 규정 등)가 확인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성과가 일부 미흡하며 법률 제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야당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라며 “네차례의 법안심사소위, 입법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의과정을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68%, 결식아동 급식단가 한끼 6000원 못미쳐”

권익위, 단가 올리고 카드 가맹점 확대 개선 권고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68%인 154곳이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안내서’에 따른 급식 권장단가 6000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한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에서 결식아동 급식단가의 최저 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내년 9월까지 권고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권익위가 지난 7월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과 대구·울산·전남·경북·제주 등 다수 지자체에서 5000원~5500원 수준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었다. 다수 지자체에서 급식카드와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 방법으로 아동급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었지만 72개 지자체에서는 급

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급식카드 가맹점 수와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지역 간 편차도 심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가맹점 수를 늘려왔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주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점 수가 부족했다.

특히 아이들이 가맹점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카드와 다른 급식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복지부가 정한 급식단가의 최저 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홍보·운영사례를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또 주요 포털에 가맹점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나 교통카드 등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지자체별 급식 지원단가 및 지원방법

시도	급식 지원단가(원/1식)	급식 지원방법
서울	7000~9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부산	5500~8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대구	5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인천	5500~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광주	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대전	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쿠폰(지역아동센터 휴먼 시)
울산	55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세종	5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경기	7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강원	5000~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식품권
충북	5000~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지역상품권
충남	5000~8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식품권
전북	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전남	5000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식품권
경북	5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식품권
경남	6000~7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상품권
제주	5000	도시락, 부식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21년 7월 기준)

출처: 머니투데이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여가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정부는 1인 가구에 자기개발이나 심리·정서 상담 등을 제공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가 국내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큰 가운데 고립이나 우울감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1인가구는 전국 12개 지역의 가족센터를 통해 자기개발, 심리·정서 상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 중장년 1인가구는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이나 정신질환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자녀 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방식 교육을 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법률상담·소송대리 등도 지원한다.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90%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간당 요금은 1만 550원에서 1055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내년부터 저소득 한 부모에게는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된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가족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 사이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전국 140여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상담가를 채용해 학령기 다문화 가정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자문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내년도 가족정책 예산을 올해보다 19.8% 증액된 885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로 내려갈 전망이다. 내년부터 저소득 한 부모에게는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된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가족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 사이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전국 140여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상담가를 채용해 학령기 다문화 가정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자문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내년도 가족정책 예산을 올해보다 19.8% 증액된 885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기준 3자녀→2자녀 확대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은 만 12세 이하 2명 이상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고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동시에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까지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존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은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 수준으로 줄고, 양육 지원 체계도 자녀 1인당 동일한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봄이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또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전세 임대 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폭을 확대한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 본인부담금 72만원 줄었다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률 20~60%→10%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올해 들어 37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부터 이달 6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37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29만7000명에 달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인 인원은 64만명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여자도 1인당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취업난도 깊어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18~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이면 1유형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청

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됐다.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도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 3억원 이하이지만, 노동부는 다음 달 중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 4억원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구직 의욕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올해 들어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인원은 2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 등 28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회적 재난, 사회백신으로 해결한다”

120억 규모 사회적 재난 대응... 10월 15일 공모 마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는 복지 지원사업인 ‘사회백신 프로젝트 II’의 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총 120억 규모의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사랑의열매 배분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회백신 프로젝트 II’는 ‘우선 지원 주제’와 ‘자유주제’ 중 선택해 지원 가능하다.

‘우선지원 주제’ 사업은 전국을

지원범위로 하고 있으며, 기관 등의 종사자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양·질 개선을 위한 인력지원’, 코로나 블루 해소, 주민 연대를 위한 ‘마을건강 회복을 위한 서비스 및 활동 지원’, 온라인 교육의 한계 보완을 위한 대면·보충교육 지원사업 등이

‘자유주제사업’은 전국 및 지역을 지원범위로 우선지원 주제 외 돌봄·건강·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하는 사

업이며, 2개 이상의 주제가 결합된 사업의 제안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우선지원 주제’사업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협회 및 단체다.

‘자유주제사업’은 광역시·도 단위 사업 수행이 가능한 협회·기관·단체 또는 시·도 지역 내 3개 이상의 기관·단체와 협력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단체다.

사업 기간은 사업 특성,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2~3년이며, 선정된 기관은 ‘우선지원 주제’사업은 최대 10억 원, ‘자유주제’사업은 최대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11월 중 선정된 비영리단체를 발표하며, 12월 중에 사업비가 지원된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씨보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기탁

(CEVO-CSE)

충청북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증진 MOU 전기차 활용 지역 사회복지 직접서비스 제공 기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와 주식회사 씨보모빌리티(영업담당이사 백종우)가 3일 지역사회공헌 및 복지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차 CEVO-CSE 전달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은 지역사회공헌과 복지증진에 대한 상호협조, 복지사업을 위한 CEVO-CSE 차량 지원 및 지역 내 차량홍보, 사회공헌과 나눔·기부문화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차량 지원을 받게 된 기관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

회,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로 위 세 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초소형 전기차(CEVO-C)를 이용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씨보모빌리티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초소형 전기차(CEVO-C SE)를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여 관내 사회복지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관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됐다.

김영석 회장은 "오늘 지원받는 5대의 차량을 활용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도 내 복지사가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주)씨보모빌리티가 지난 3일 지역사회공헌 및 복지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차 CEVO-C SE 전달 업무협약식을 했다.

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씨보모빌리티 영업담당 백종우 이사는 "씨보모빌리티의 초

소형 전기차가 충북 구석구석 어느 곳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갈 수 있길 바라며,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이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15일 씨엔씨 푸른병원, 씨엔씨 재활요양병원과 어르신들의 사회적 회복 탄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사회 될 수 있기를”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씨엔씨 푸른병원·재활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김현숙)은 15일 씨엔씨 푸른병원(병원장 황찬호), 씨엔씨 재활요양병원(병원장 이지용)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청주가경노인복지관과 두 병원은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교류 및 유기적 협

력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예방적 기능회복을 지원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달 16일부터 매주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정보, 노인성질환 예방 등 특강과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현숙 관장은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된 요즘 시대에 어르신들

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더욱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양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우리 지역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찬호 원장은 "홍덕구 지역에서 우리 병원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상생하는 병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장년 가사도우미도 앱 통해 신청하세요”

사회적기업(주)가온, 충북 중심 돌봄서비스 앱 운영



사회적기업(주)가온이 출시한 돌봄서비스 플랫폼 '우렁각시' 앱.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사도우미, 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요양보호사, 병원 간병사, 펫시터 등 돌봄서비스 신청도 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생활돌봄서비

스를 제공하는 '선한 플랫폼'이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주)가온(대표이사 이경재)은 '지역주민들께는 양질의 서비스를, 서비스 종사자에게

는 양질의 일자리를'이라는 목표로 돌봄서비스 플랫폼 '우렁각시' 앱을 출시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7월 출시된 '우렁각시' 앱은 2개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고객들도, 종사자들도 이제는 비대면 앱 시스템 전환에 적응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주)가온은 급변하는 생활 트렌드 변화에 따라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줌(ZOOM)을 통한 정기적 화상회의와 비대면 교육 도입 등 앱 사용법 교육, 앱 가입과 설치에 힘쓰고 있다.

'우렁각시' 앱은 가사관리, 산후관리, 베이비시터, 병원간병, 펫시터, 방문요양에 대한 공급증을 클릭 한번에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300여명의 관리사들의 프로필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사용했던 사람들의 리뷰까지 볼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었다.

'우렁각시' 앱은 고객에게는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면서도 낮은

수수료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선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이경재 가온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생활서비스 플랫폼은 대략 20% 내외의 수수료 수준이나 우렁각시는 정액 회원으로 일반 플랫폼의 약 1/4수준에 불과하다"며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저희 가온이 그동안 개선해왔던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부담하는 높은 수수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렁각시' 앱의 낮은 수수료는 이용이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노동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 (주)가온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며 양질의 서비스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경제적 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북 발달장애인 '행복GPS' 무상 보급

실종 위험 있는 발달장애인에 제공... 2년간 사후 관리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애자, 이하 충북발달센터)는 8월부터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행복GPS' 94대를 무상보급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

다. 배회감지기 '행복GPS'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SK하이닉스가 지원하며, 실종 위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보급된다.

손목시계 형태의 '행복GPS'는

모바일을 통해 착용자의 위치정보가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설정한 안심구역을 이탈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울리는 기능과 응급 호출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행복GPS'는 도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방과후 활동제공기관 등 이용자 중 실종 예방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선정해 배

포하였으며, 향후 2년간 통신료 지원 등 사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배회감지기 '행복GPS' 기기가 필요한 대상자는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0~1)로 신청하면 된다.

김애자 센터장은 "이번 배회감지기 보급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해보세요”

내달 7일까지 접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청주시가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2021년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 한마당' 참가자를 이달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

2021년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 한마당은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아

동이 행복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의 장으로 청주시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2인~6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아동·청소년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 후 이메일(haebonpolicy@

gmail.com) 또는 청주시 아동보육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팀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접수해 예산 심사를 거쳐 본선진출 6개 팀을 선정하고 워크숍 실시 후 11월 본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선대회를 거쳐 채택된 우수 제안은 실현 여부와 예산확보 등 부서별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청주시노인복지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제작한 추억의 장바구니.

청주시노인복지관 코로나 우울증 극복 '총력'

돌봄이용자 등 300명에 추억의 장바구니 전달

청주시노인복지관(관장 김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인 맞춤형 돌봄 이용자, 평생교육, 노인

일자리 등 우울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노인 300명에게 비대면으로 추억의 장바구니를 전달했다.

이번 추억의 장바구니 전달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우울감 감소를 위해 마련했으며, 말벗 서비스도 함께 진행했다.

'추억의 장바구니'는 노인들이 과거 즐기던 추억의 놀이거리(숫놀이, 비석 치기, 제기차기, 공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와 간식거리(뽕튀기, 껌돌이, 모나카, 짬뽕, 파베기, 약과 등)로 구성된 장바구니를 전달해 간식을 먹으면서 추억 놀이를 통해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복지광장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치매관리사업을 희망하며

복지포럼

코로나19와 사회복지의 날 소회



김 응 정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알츠하이머병협회는 알츠하이머 질환에 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08년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운영하였고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매년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 전·후 주간을 '치매극복 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극복 기념식', '유공자 표창', '치매체험박람회', '치매극복 시화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치

매극복의 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한 치매관리사업 활동의 둔화 등으로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해이다. 2000년 무렵까지 치매는 '노망', '망령' 등으로 일부 불리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때 치매가족협회, 노인요양원 등 치매 환자 분들을 모시고 있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이 이루어졌고 충청북도에도 인식 개선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한계에 따라 지속적 활동보다는 이벤트 성 활동이 주를 이루다 보니 인식 개선의 전파 속도는 더디기만 하였다. 그러던 중 2008년 드디어 민간 차원의 치매 인식개선 활동이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사업으로 전환을 맞이한다.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2008년은 치매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건소 중심의 치매관리사업과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치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3년이 흘렀다. 그 동안 3번의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시행되고 평가되었고 올해부터는 4번째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시작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치매국가 책임제'라는 정책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었고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치매환자 돌봄, 치매예방 등을 위해 새롭게 강화된 정책이 시행되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치매는 쉽지 않은 질병이며, 돌봄 부담이 높은 질병이다. 얼마 전 개인적 친분이 있는 모 방송국 PD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그동안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해 드려 본인 스스로는 치매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부모님 중 한분이 치매 진단을 받는 등 어려움이 닥치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더라 소위 '멘붕' 상태라고 하는 고민을 들은 적이 있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민간기관 등에서는 치매환자, 보호자를 위해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해외 연수를 통해 돌아온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 해외보다 더 우수한 전달체계와 서비스를 우리가 갖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여전히 서비스를 잘 모르고 있고 치매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서비스를 찾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홍보 활동은 더 중요하다. 그러기에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 19가 사람 간 대면활동을 감소 시킴에 따라 홍보활동 역시 줄어드는 현실은 안타깝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집단면역을 통해 독감과 같은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예방과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치매관리사업에도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치매관리사업 홍보 활동 발굴은 중요한 과제이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좀 더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 위드 코로나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치매관리사업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우리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빅데이터, AI 등 첨단 장비로 이어가 하지만 막상 현장의 대상자는 소소하고 따뜻한 한마디에 더 큰 안심을 한다. 위드 코로나가 첨단 장비로 무장된 온라인만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설 수 있는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치매관리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2022년 9월 21일 제15회 치매극복의 날과 주간행사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충북도민 누구나 치매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김 영 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2021년 9월 7일은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념식, 세미나, 백일장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정치권이나 언론들에게 잠시나마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조용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로 변해버렸고, 축하를 받으며 상을 받아야 할 유공자들에게 주는 표창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우편으로 표창을 보내다 보니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별다른 의미 부여 없이 보냈던 기억이 너무 아쉬워서, 올해만큼은 최소한 유공자 시상식만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이유로 그 의견이 보기 좋게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사회복지의 날이 주는 의미도 살리고 방역도 지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못에서도 못에서도 누구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무조건 막기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시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범위에서 중부권(청주·증평·괴산·음성·진천), 북부권(충주·제천·단양), 남부권(보은·옥천·영동)으로 권역을 나누어 유공자들을 찾아 뵙고 표창을 전해드리며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방역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끝나고 보니 좋은 시도였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우선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양순경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과 최미숙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준비에서 끝날 때까지 고생을 많이 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한기위 명절이 지나면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현재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사회복지환경은 또 다른 상황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서비스가 대부분인 사회복지 현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서비스 내용과 방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것이고, 오래 지속된 거리두기로 인해 마음까지 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예산타령만 하며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는 예산확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발 사회복지현장도 혁신이라는 말, 개혁이라는 말을 남의 이야기로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스러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

“하루하루 값진 경험”



이 혜 진

청주흥덕시니어클럽 사회복지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한지 3년째,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시작했던 현장은 생각보다 나의 부족함을 많이 깨달았고, 채워가야 바빴다. 어렸을 때부터 지역의 어르신들과 사이가 좋았고 폐지를 줍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저 않고 달려가 수레를 밀어주며 도와주고는 했다. 그러면서 나의 적성에 맞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겼고, 노인복지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듯 시작은 항상 어렵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에게도 그랬다. 입사하고 가장 먼저 주어진 사업은 '노노케어', 말 그대로 건강한 노인이 취약한 노인을 케어 하는 공익형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싶었다. 그러나 200명이 넘는 많은 회원의 관리부터 행정 업무 등 쉬운 부분이 없었고 실수를 하게 되면 나에게 실망을 하고 작아졌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시금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나를 보며 감사하다며 잘 따라와 주려고 노력해주시는 어르신들이 감사했고, 무엇보다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선임들이 있었기에 주저않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다. 1년차는 적응과 배움의 과정이었다면 2년차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 할 수 있었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보이며 사업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1년차 때와는 다른 하루하루 더욱 보람차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노노케어에 이어 올해에는 새롭게 '카페온정'이라는 수익을 내야 하는 시장형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시장형 사업 담

당자로서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공익형이 아닌 시장형에서의 복지는 과연 무엇일까. '카페온정' 사업을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사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카페의 수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만 달려 온 건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카페온정의 근무자들은 활동을 일차리 사업을 위해 잠시 참여하는 카페가 아닌 모두들 나의 카페라고 생각하며 어떤 일이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다. 카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카페에 대한 애정이 있는 회원들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의 복지사로서의 할 일은 카페온정이란 근무자들의 카페에서 일을 하는 8시간을 만족하고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일자리가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환경이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카페 매장의 환경과 근무 분위기, 근무자들의 상호작용, 담당자와의 상호작용 등 많은 부분이 있고, 모든 환경의 배경에는 매출이라고 생각한다. "근무시간에 힘들어도 손님이 많아 바쁘게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여기서 앞서 말한 사회복지

사의 역할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만족을 위해서는 근무하는 카페가 더 나아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게 복지사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노케어'와 '카페온정' 사업을 담당하면서 어르신들과 보내는 하루하루는 사회복지사로서 성장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기도 했지만, 일을 하는 어르신들의 웃음과 사소한 일상이야기, 옛날이야기를 공유하며 힐링 하는 값진 날들이기도 하다. 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하면서 담당자로서 아쉬움은 존재한다. 조금 더 경험이 많아 노력하게 대처했더라면, 아는 것이 많아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존재하나 아쉬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아쉬움을 넘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회복지의 꿈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는 것이 많아 보이는 것이 많고, 보이는 것이 많아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역할이 많아진다. 나의 역할로 누군가에게 큰 힘과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이 또 있을까 싶다. 앞보가 기대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회복지의 꿈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는 것이 많아 보이는 것이 많고, 보이는 것이 많아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역할이 많아진다. 나의 역할로 누군가에게 큰 힘과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이 또 있을까 싶다. 앞보가 기대된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법안 통과가 이뤄진 탓에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던 중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그 핵심 내용에 대한 문답을 정리하여 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Q 여러 차례 계약갱신을 했는데 또 연장할 수 있나.
A 이전에 몇 번 계약갱신을 했던 상관없다. 법 시행 후 한 차례 더 가능하다.
Q 2020년 9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A 법 시행일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통보하면 된다.
Q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법 시행 전 이미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
A 이 경우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다른 세입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Q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종전 전셋값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나.

A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다.
Q 집주인이 월세를 현재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다.
A 개정안에서 규정한 상한선이 5%이기 때문에 52만5000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가능한가.
A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임차인이 수용할 경우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다.
Q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나.
A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만큼 거주하면 된다. 세입자가 2년 요구했다면 2년, 1년 요구했다면 1년 거주하면 된다.

지역사회봉사단

신문봉사단, 신문 발행 봉사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신문봉사단(단장 이희일)은 지난 9월 1일 청주시 충

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신문봉사를 진행했다.
신문봉사단은 2010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희일 단장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충북사회복지신문은 도내의 사회복지정보에 대한 신속한 전달매체"라며 "앞으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봉사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새얼굴

장선에 청주상당노인복지관 제6대 관장 취임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은 청주시의 위탁운영으로 (재)청주교구천주교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다.
이번 9월 1일자로 법인 내 인사이동을 통해 제6대 장선에 관장이 취임했다.
장선에 관장은 '풍부한 경험은 노인의 자랑이요, 노인을 공경함은 젊은이의 자랑이다'라는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의 관훈을 마음에 새기며 지역 내 어르신들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

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선에 관장은 지난 2015년부터 청주수동(상당)시니어클럽 관장으로 역임하고, 현재 청주상당노인복지관 장과 청주상당재가노인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인사동정

- 충주상당시니어클럽 - 변경전: 장선에, 변경후: 권순오, 취임일: 2021년 9월 1일
산남종합사회복지관·산남노인복지센터 - 변경전: 박종분, 변경후: 송홍영, 취임일: 2021년 9월 1일
충북재활원 보호직업장 - 변경전: 김성우, 변경후: 박종분, 취임일: 2021년 9월 1일
충북재활원 마리아의집·공동생활가정 실·충북재활의원 - 변경전: 박민호, 변경후: 김성우, 취임일: 2021년 9월 1일
충주성심맹아원 - 변경전: 권순오, 변경후: 안순기, 취임일: 2021년 9월 1일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7명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슬기 대리

복지정보 제공

[코아드]코아드 자문료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door.com)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door.com 으로 문의 가능

[여승사회복지재단] '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이메일 발송
신청기간: 수시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4,000~4,500원)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문의: 02-553-3488

[바보의나눔]코로나19 관련 cpbc라디오 모금 방송 사연 대상자 추천 안내

- 방송명: cpbc라디오(평화방송) 힘들면 전

- 방송일시: 매주 월~토 15시~16시
방송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ARS 및 무통장 모금 진행 (방송일로부터 2주일)
진행 과정: 사연대상자 추천서류 메일접수 - 사례 선정 여부 안내 - 방송 녹음 진행(대상자/기관 담당자) - 방송 및 모금 진행 - 모금액 집계 및 지급 - 사용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신청공문 및 대상자 추천서(양식참조), 통장사본 각 1부
제출기한: 상시접수(2주에 사연자 1명 방송)
기타: 모금액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함(ARS 수수료분 제외)
사연 대상자 추천은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추천에 한해 접수(지역제한 없음)
라디오 방송으로 대상자의 목소리가 노출됨(가명 사용) - 대상자 동의 필수
문의: 나눔사업팀 하서이 (02-727-2511 /apple@babo.or.kr)
[KT&G복지재단] 2021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장애인지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후원물품(*기관사업비, 기관후원물품 제외)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매월 1일 ~ 20일)->선정발표(매월 마지막주)->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후원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제출(1개월 이내)
제출서류: 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참조
지원금액: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KT&G복지재단] 2021년 행복기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신청대상: 저소득 (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지원가능물품: 학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참고: www.ktngwelfare.org

자원 봉사자 모집

초중생 영어 학습지도

관리센터: 에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9.1~10.31
전화번호: 043-254-9391

조리업무 봉사

관리센터: 청주청소년쉼터
활동기간: 9.1~10.31
전화번호: 043-231-2676

건강검진 문진표작성 도우미 및 안내

관리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활동기간: 9.1~10.31
전화번호: 043-299-5734

어르신 한글지도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9.1~10.31
전화번호: 043-266-4761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9.1~10.31
전화번호: 043-216-1365

마을연구활동 봉사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9.1~10.31
전화번호: 285-0102

말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9.1~10.31
전화번호: 043-835-4288

녹음도서 모니터링

관리센터: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9.1~10.31
전화번호: 043-237-5544

유아성폭력예방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기간: 9.1~10.31
전화번호: 043-216-1391

공예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9.1~10.31
전화번호: 043-835-4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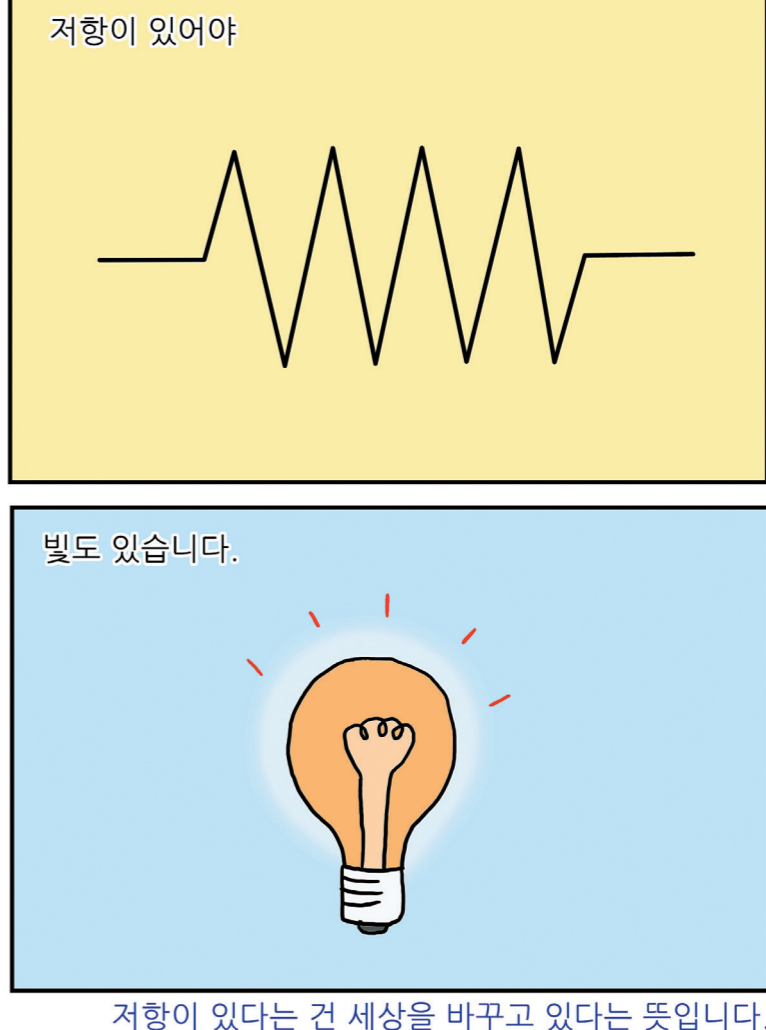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저항

이창신 www.bokmani.com



2021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미래!!!
참가 대상: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3명 이하 팀)
소논문 부문 UCC 부문
공모 주제:
심사금:
공모 기간·부문:
1차 접수기간: 9월 17일(금) ~ 10월 31일(월) 04:00
소논문 부문 UCC 부문
심사금:
공모 주제:
심사기간: 11월 1일(월) ~ 11월 4일(목) 04:00
결과발표: 11월 8일(월)
선언서 작성: 11월 8일(월) ~ 11월 30일(화) 02:00
1차 기차서 통과자 대상
2차 접수기간: 11월 29일(월) ~ 11월 30일(화)
소논문 부문 UCC 부문
심사금:
공모 주제:
심사기간: 12월 1일(수) ~ 12월 5일(일) 03:00
최종발표: 12월 8일(수)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다는 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